

작품으로 만나는 여성들 ‘her심탄회’

3월 23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전시관 허스토리

광주민족미술협회 여성작가 김화순 등 5인 참여



손항욱 작 '내안의 나'

수많은 권력의 폭거와 탄압 속에서 자신을 내던진 민주열사들의 신념과 염원,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모습 등을 이야기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광주민족미술협회 여성작가 5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her심탄회' 전 (3월23일까지)을 재단 3층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투 이후의 시대를 여성을 통해 형상한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 대부분은 8~90년대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던 광주에서 대학 미술 운동을 시작으로 진보적 미술인의 삶을 탐구, 실험하며 살아온 이들이다.

김화순 작가의 '하제 팽나무 아래서 평화를 공리하다'는 600년 동안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주었던 팽나무

에 대해 이야기한다. 거대한 가치를 펼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주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세상사를 다 품어주었을 팽나무가 미군 기지 확장을 위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 역시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작가는 전쟁, 핵 등 남성 중심 사회의 산물들에서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전한다.

김희련 작가는 염색전에 바느질로 드로잉 한 '꽃 오월 사람(Flower: the Person of May)'을 전시중이다. 광주항쟁에 참여한 여성 '김양'을 통해 당시 저항의 주체였지만 숨겨진 여성들의 모습을 선보인다.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손항욱 작가의 '내 안의 나'는 버티고 이겨낼 힘은 내안에 존재함을 말하며, 추현경 작가는 '오월 시민 행진 그날 WHO'를 통해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고 전한다.

전시는 광주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문의 062-670-0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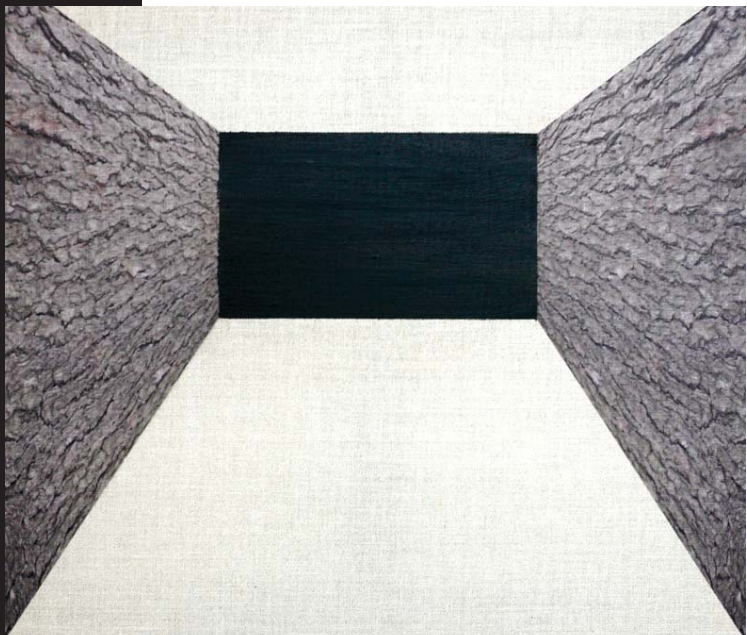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희련 작 '꽃 오월 사람'

'사유공간' 서 사색의 시간

조운성 작가의 최근 작업은 '시간'과 '공간'의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흑과 백을 주조로 사용한 근작들은 색채의 대비를 통해 깊은 공간감을 부여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사유공간'

조운성 교수 초대전, 22일까지 화순 다산미술관

기를 만들어낸다.

화순에 자리잡은 다산미술관(화순군 사평면 다공길 25)이 새해 첫 전시로 조운성 작가 초대전을 오는 22일까지 개최한다. '사유 공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조 작가는 다양한 신작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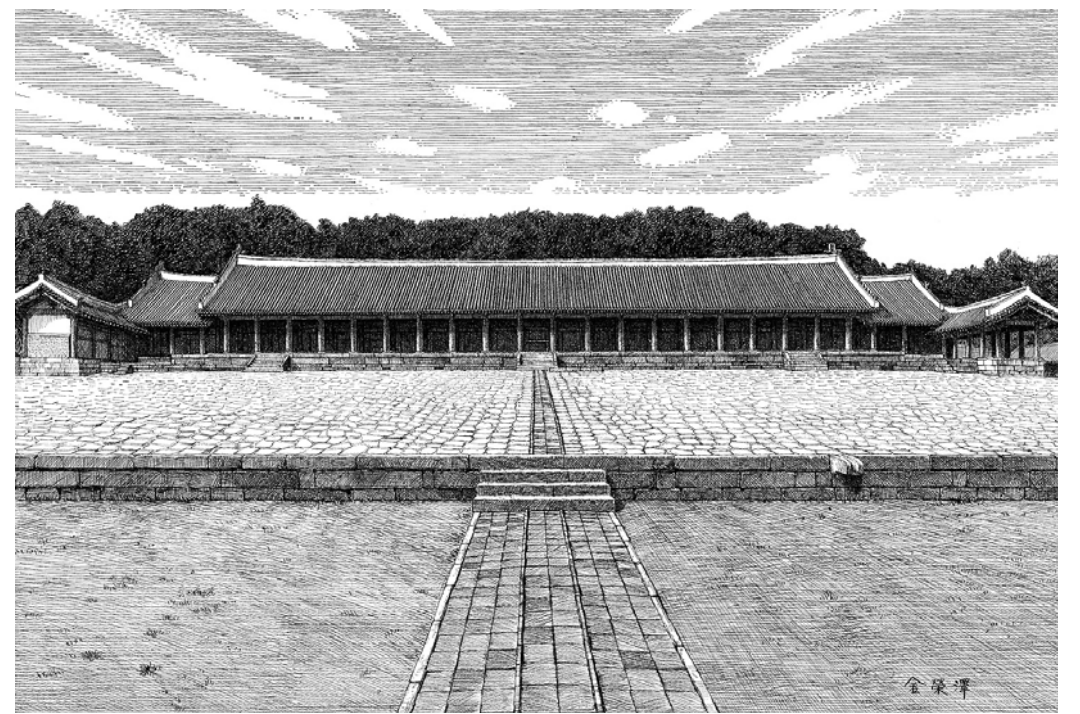
그는 이번 작업을 통해 바쁜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관객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함께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한다.

조 작가는 '대비'를 주 테마로 잡아 작업한다. 대비는 어떤 요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반대되는 형태와 색채 등을 나란히 배치해 서로의 특징이 강하게 부각되는 효과를 일으킨다. 리듬, 균형, 통일 등에 변화를 주는 중요한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대상의 강조와 대조미를 느낄 수 있다.

그의 작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또 다른 문법은 점, 선, 면의 공간 변화와 순간, 시간의 교차다. 그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 혹은 작품의 형식과 내용 등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간다.

조선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영택 작 '서울 종묘 정전'

건축문화재 '펜그림 저장'...김영택 펜화가 별세

펜화가 김영택 씨가 13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 우리 건축 문화재를 펜으로 복원하는 데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다.

1945년 인천에서 태어난 그는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숭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산업디자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93년 국제상표센터가 세계 정상급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주는 '디자인 엠베서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인정받았다. 디자이너로 성공했지만 우연히 펜화를 접하고 화가로 나섰다. 펜화는 펜촉을 사포로 갈아 0.05mm, 0.03mm 굵기로 만든 뒤 도화지에 선을 50만~80만번 그어 완성하는 작업이다.



고인은 서양에서 시작된 펜화를 독학으로 연구하고 전국을 돌며 우리 문화재를 한국적 화풍으로 표현했다. 화재로 소실됐던 숭례문의 1910년대 전경을 비롯해 양산 통도사, 해인사 일주문, 광화문, 경주 황룡사 9층 목탑 등 소중한 전통 건축물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현재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유실되거나 손실된 부분을 온전하게 되살렸다. 한국문화재단이 화장을 맡는 등 펜화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연합뉴스

국립중앙도서관, 웹DB 신규 제공...전자책 등 49종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웹DB를 신규 제공한다. 도서관은 전자책, 신문·잡지, 학술자료 등 국내외 데이터베이스(DB)를 42종에서 4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웹DB는 웹에서 텍스트, 이미지, 음향,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초록, 원문 등을 열람 및 인쇄,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이밖에 전 세계 유명 출판사 및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된 학술 전자책 20만권 이상도 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디비피아(DBpia), 세이지(Sage) 등 학술·전문 데이터베이스의 도서관 외부 이용 기간은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도서관 정기이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도서관 누리집에서 이용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고전번역원 AI 번역 서비스... '승정원 일기' 등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 등 원문을 인공지능(AI)이 번역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 원문을 한글로 자동번역해주는 AI 기술 기반 한문고전 번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전번역원은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이 제공하는 자동번역 서비스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반번역 기술을 한문고전 자동번역서비

스에 적용해 모델을 개발했다. 베타버전인 자동번역 서비스는 번역원이 2017~2019년 개발한 승정원일기 자동번역 모델과 2019년 승정원일기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 개발했다.

한국고전 자동번역 서비스는 웹과 모바일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승정원일기 자동번역은 SNS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수출진흥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유망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